16

女中生 폭행살해 河川에 死體유기

88. 2.26 한

20代범인 검거

서울城北경찰서는 25일 여중생을 폭행한뒤 목졸라살해, 사체를 물속에버리고 달아난 曺圭福씨(28·강도등 전과3범·추거부정)를 붙잡아 수사중이다.

경찰에 의하면 曺씨는 지난해 10월21일 하오10시께 경북 榮州市 可興1洞만흥교밑에서 귀가하던 이동네 金모양(16·여중3년)을 강제로 욕보이고 목졸라 살해한뒤 사체를 물속에버리고 달아났다는것.

曺씨는 이에앞서 지난해 10월2일하오7시50분께 경부선 義城郡義城邑喨竹4洞 세명아파트A동105호 유기자씨(34·여) 집에 망치를 들고 침입, 금품을 요구하다 유씨를 망치로 때려 중태에 빠뜨린뒤 하오 8시50분께는 義城邑鐵坡里344 정운주씨(48) 집에 다시 침입, 돈을 요구하다 안방에 있던 공기총 개머리판으로 정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뒤 공포3발을 쏘며 달아났다.

밤길 女中生자매 폭행

高校生 한동네친구 4명 검거 令狀신청

87. 10. 29

東亞日報

서울강동경찰서는 29일 길가던 여중생자매를 끌고가 차례로 폭행한 李모군(16·R공고1년) 金모군(16·B상고1년)등 10대고교생 4명을 강간치상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네친구사이인 李군등은 28일새벽 1시경 서울江東구 梧琴동 성내천다리위에서 Y양(15·중3년)과 동생(13·중1년) 자매가 權모군(15·B중3년)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權군을 위협, 도망치게한뒤 이들 자매를 다리밑으로 끌고가 차례로 폭행했다는것.

거국내각 유인물 全南大 2명 연행

【光州聯】光州경찰서는 29일 「공정선거 보장하는 거국중립내각 쟁취하자」는 유인물을 거리에 붙인 전남대회계학과 2년 金난희양(20)과 경제학과 2년 전우천군(20)등 2명을 조사중이다.

「仁川新聞」발기인대회

【仁川聯】가칭「인천신문사」 설립 발기인대회가 28일오후 3시 仁川상의회장실에서 경인일보 仁川지역 주주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는 현 경인일보사의 재산재평가에 따른 仁川지역 주주들에 대한 재산분배액과 신주공모를 통한 10억원 증자및 회사설립시기 문제등을 논의했다.

인천신문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文경하)는 12월초 발기인 총회를 갖기로 했다.

본드幻覺 중학생6명 女中生2명 집단暴行

87. 10. 13 한

4명구속 1명手配

서울 麻浦경찰서는 12일 본드와 부탄가스를마신뒤환각상태에서길가던 여중생2명을폭행한 金모군(15·K중3)등 중학생 6명중 高모군(15·H중3)등 4명을 강간치상·독극물에 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閔모군(15·K중3)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金군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중 소식을듣고 달려온 피해자 李모양(13·H여중2)의 아버지 李모씨(46·상업·서울麻浦區望遠洞)로부터 가슴을 발에채여 쓰러지면서 머리를 벽에 부딪쳐 병원에 입원했으나 중태다.

국교생 추행살해 10대 징역 10년형 선고

89. 11. 11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창엽 부장판사)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국교 여자어린이 강제추행 살해사건 범인으로 구속기소된 서아무개(15·중3 중퇴)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군의 범행수법이 극히 잔인하고 결과가 심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되지만 소년범의 양형제한규정에 따라 이같이 선고한다"면서 "변호인쪽이 내놓은 범행당시 서군의 '정신적 행동장애' 주장은 형법상 심신유약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서군은 지난 5월24일 오후 5시30분께 서울 학동국교 화장실에서 이 학교 3년 오아무개(9)양을 강제추행한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15년을 구형받았다.